



보도시점 2026. 5. 7.(목), 16:00 배포 2026. 5. 7.(목), 16:00

# 생산자-소비자 함께하는 유통혁신

- 제1차 농산물 유통혁신 TF 회의 개최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5월 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농산물 유통혁신 TF 회의’를 개최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농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유통·소비자 단체, 학계, 정부 관계자 등 총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생산 기반부터 판로, 수급관리, 유통 혁신까지 농산물 유통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체계 개선 △공영도매시장 및 농협의 역할 강화 △산지조직화와 계약거래 확대 △소비자의 접근성 및 유통 투명성 제고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향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농산물 유통단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한 운영 내실화와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함께 제기되어 향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산지조직화와 계약거래 확대 등 농협과 산지유통조직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기존 유통체계의 기능 재정립과 거래 방식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소비지까지 잘 전달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속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안정과 품질 신뢰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호 위원장은 “농산물 유통 문제는 생산자의 공정한 적정 가격 수취를 통해 재생산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산지 조직화와 계약거래 확대를 통해 농가의 가격 협상력과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TF는 지역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내 분과위원회 및 본회의 보고를 통해 농산물 유통혁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농수산식품팀	책임자	팀 장	양호섭	(02-6260-1231)
		담당자	사무관	김기흥	(02-6260-1236)